

한국의 대일무역 역조 개선방안

성 병 호

Improving Measures of Adverse Balance of Korean Trade to Japan

Byung-Ho Sung



● 성병호[현대정공(주) 공장기계사업
본부]
● 1947년생
● 산업기계 및 공장기계 분야에 근무
하고 있으며, 대일본수출 및 대일무
역수지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머리말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도에 3저라는 국제경제여건을 호기로 삼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세계적인 BLOCK 경제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수많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무역적자가 6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무역역조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994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적자의 188% 이상에 해당하는 118억 7천만 달러가 대일무역에서 발생한 대일역조라는 사실과 최근 몇 년간 대일무역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노동집약형 사업이 추가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산업재,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본재 및 중간재와 기술력에 대한 대일의존도의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 하에서는 대일무역역조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역조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대일 무역적자 현황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개도국으로서 유례가 없는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표 1에서 보면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도 한국의 수출규모는 5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77년도는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1994년 현재 960억 달러에 달하고

표 1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입액

년	수 출	수 입	수출입(-)초과
1962	54,813	421,782	-366,969
1963	86,802	560,273	-473,471
1964	119,058	404,351	-285,293
1965	175,082	463,442	-288,360
1966	250,334	716,441	-466,107
1967	320,229	996,246	-676,017
1968	455,400	1,462,873	-1,007,473
1969	622,516	1,823,611	-1,201,095
1970	835,185	1,983,973	-1,148,788
1971	1,067,607	2,394,320	-1,326,713
1972	1,624,088	2,522,002	-897,914
1973	3,225,025	4,240,277	-1,015,252
1974	4,460,370	6,851,848	-2,391,478
1975	5,081,016	7,274,434	-2,193,418
1976	7,715,343	8,773,632	-1,058,289
1977	10,046,457	10,810,538	-764,081
1978	12,710,642	14,971,930	-2,261,288
1979	15,055,453	20,338,611	-5,283,158
1980	17,504,862	22,291,663	-4,786,801
1981	21,253,757	26,131,421	-4,877,664
1982	21,853,394	24,250,840	-2,397,446
1983	24,445,054	26,192,221	-1,747,167
1984	29,244,861	30,631,441	-1,386,580
1985	30,283,122	31,135,655	-852,533
1986	34,714,470	31,583,900	3,130,570
1987	47,280,927	41,019,812	6,261,115
1988	60,696,388	51,810,632	8,885,756
1989	62,377,174	61,464,772	912,402
1990	65,015,731	69,843,678	-4,827,947
1991	71,870,122	81,524,858	-9,654,736
1992	76,631,515	81,775,257	-5,143,742
1993	82,235,866	83,800,142	-1,564,276
1994	96,013,237	102,348,175	-6,334,938

資料：韓國貿易協會，「月別貿易實績」各月號에서 作成.

단위：1,000달러

있다.⁽¹⁾ 수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수입규모도 크게 늘어나서 1985년까지 경상수지 적자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1986년 이후 4년간 국내외 환경 및 수출호조로 인해 흑자로 반전하였고 1990년 이후 다시 무역수지 적자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2차대전 패망 이후 한일간의 무역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1950년의 한국전쟁은 우리의 생산설비를 완전히 파괴한 반면, 일본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쟁중의 구호물품은 물론 전쟁물자들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유로 일본이 조달하게 됨으로써 일본 경제부흥의 요인이 되었고, 전쟁후의 복구를 위한 산업설비-기자재 등이 국내로 대량유입 되었다. 이때의 대일 무역역조는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²⁾ 국교정상화(1965) 이후의 경제관계를 보면, 한일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60년대 국제경제적 조건의 변화, 한국의 자립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일본의 내적 필요성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배경은 첫째, 전후 미국원조의 감소에 따른 새로운 외국자본의 필요성 둘째,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막대한 외자도입의 필요성에 의해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막대한 외자를 조달하려 하였다.⁽³⁾ 한편 일본의 경제배경은 첫째, 한국동란 특수 이후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양질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의 급등, 설비투자조건, 공해산업에 대한 저항이 적으며, 넷째 한국으로의 자본진출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다.⁽⁴⁾ 고도성장 정책을 피하려는 한국정부의 입장 아래 추진되어온 한일 경제협력은 그후 한국경제의 개발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일본자본의 도입에 있어서 선별적인 수용의 여유를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일수출, 나아가서는 한국 수출정책 전반에 있어서 상품무역 그 자체의 경제성보다도 외화획득의 필요성에 쫓기면서 달러가득을 위한 출혈 수출도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다.⁽⁵⁾

표 2에서 보면 1965~'70년 기간중 대일수출 및 수입은 각각 6억 2천만 달러 및 22억 9천만 달러로서 무역수지는 16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동 기간중 전체무역적자의 34.9%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도 계속 악화되어 1970년대에는 168억 달러, 1980년대에는 191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983~1985년 기간에는 대일적자액이 전체 무역적자액을 상회하게 되어 일본을 제외한 여타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대일적자액이 이를 상회하여 전체 무역수지는 적자로 나타났다.⁽⁶⁾ 특히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 흑자로 전환된 지난 1986~89년도에

도 대일무역적자는 계속되었으며, 그후 계속 증가하여 '94년도에는 118억 7천만 원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

대일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것은 우선 수입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기술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여타 선진국의 상품보다 경쟁력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 주종품목이 소재나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며 수입선다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개발 초기부터 부품 및 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한 후 이를 조립, 가공하여 수출하는 성장전략을 취한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산업 및 무역의 대일의존도가 심화된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최근의 내수위주의 성장에 따른 수입유발 효과, 후발 개도국의 추격과 노사분규로 인한 고임금 등의 요인으로 가격경쟁력 상실 등이 대일무역적자의 확대에 가세하였다.⁽⁷⁾

이러한 경제적 요인외에 일본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전후세대들이 일본지배의 영향으로 대일 수입을 상대적으로 선호해 온 것도 사실이다.

상품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1960년대의 수입구조는 식량, 완제품 소비재 등이 주종을 이루다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따른 자본재의 수입증가로 1차상품과 경공업 제품의 수입비중이 낮아졌고, 이는 기계류, 부품등 중간재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중간재나 자본재의 공급을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의존해왔기 때문이다.⁽⁸⁾

한국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취약과 기술수준의 미약에 따라 대일의존이 심한 자본재의 경우가 특히 증가하여 자본재의 수입초과가 대일무역역조 현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일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더욱더 대일의존적으로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표 2 한국의 대일무역 추이

연 도	대일수출		대일수입		대일무역수지	총무역수지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65~70	6.2	24.1	22.9	30.7	-16.7	-48.0
1971~80	174.8	22.3	342.9	34.1	-168.0	-219.9
1981~90	704.0	17.1	1096.2	27.8	-382.3	30.0
1981	35.0	16.5	63.7	24.4	-28.7	-48.8
1982	33.9	15.5	53.1	21.9	-19.2	-24.0
1983	34.0	13.9	62.4	23.8	-28.3	-17.5
1984	36.0	15.7	76.4	24.9	-31.0	-13.9
1985	45.3	15.0	75.6	24.3	-30.2	-8.5
1986	54.3	15.6	108.7	34.4	-54.4	31.3
1987	84.5	17.8	136.6	33.2	-52.1	62.6
1988	120.0	19.8	159.2	30.7	-39.2	88.9
1989	134.6	21.5	174.5	28.3	-39.9	9.1
1990	126.4	19.4	185.7	26.6	-59.3	-48.3
1991	123.6	17.2	211.2	25.9	-87.6	-96.5
1992	116.0	15.1	194.6	23.8	-78.6	-51.4
1993	115.6	14.1	200.2	23.9	-84.6	-15.6
1994	135.2	14.1	253.9	24.8	-118.7	-63.3

資料: 韓國貿易協會, 「主要經濟指標」 各年號, 「무역통계연보」각호,

商工部, 「貿易動向」 各年號에서 作成

단위: 억 달러, %

3.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

3.1 대일 수입 관련 문제점

우리 나라의 '60년대 이후의 경제 발전 방식은 생산활동을 처음부터 해외수요를 고려한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이었으며, '70년대 이후 국내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분야의 조립 가공업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나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자체 기술개발 및 관련 부품 소재 산업과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해 부품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수입 유발 산업구조를 초래하였다.⁽⁹⁾

이러한 산업구조 체계에서 특히 지역적인 인접성,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의 일본 기술 습득에 대한 유대성, 언어·문화의 유사성, 부품조달의 용이성 등 많은 이점이 작용하여 모든 산업 특히 기계공업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가중시키게 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순수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개발 추진이 어려워 이러한 기술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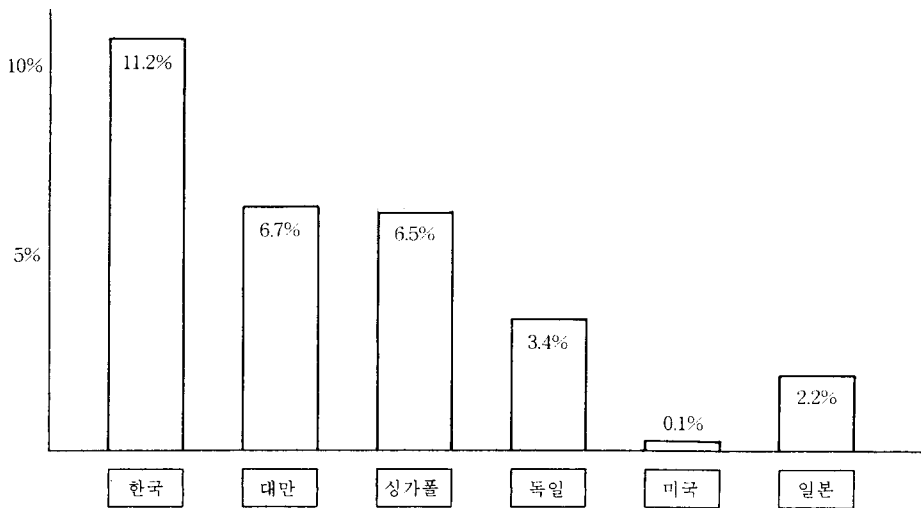
기술을 통한 모방적 개발 패턴 방식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급속한 공업화와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생산 기술개발의 시간단축을 위하여 선진국,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⁰⁾

3.2 대일수출관련 문제점

3.2.1 일본 제품에 대한 경쟁력 열세

최근 우리 나라의 대일수출 부진은 수출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출 경쟁력의 약화 요인은 가격 경쟁력의 약화와 비가격 경쟁력의 약화도 구분할 수 있다. 비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품질과 마케팅 요인이며, 구체적으로 제품의 다양화 정도, 제품의 불량률, 제품의 현지화 노력 정도, 소량주문처리 정도, 납기준수 정도, A/S제공 여부, 현지 판매법인 유무, 시장조사 유무, 자사 브랜드 수출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은 양국의 도매 물가 수준의 차이와 우리 나라의 대 엔화 환율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일본



자료: 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 제조업 실질임금 상승률(%)

의 소매 물가지수를 우리 나라의 도매 물가지수로 나눈 값이 클수록 우리나라의 제품 가격이 일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원/엔 환율이 높을수록 원화로 표시한 대일 수출품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엔화 표시 수출품 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¹¹⁾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임금상승, 금융비용 상승, 수출여건의 악화를 들 수 있으며, 환율변동은 최근의 엔화강세로 경쟁력강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본 시장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수출상품의 제품 품질강화 등의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2 기술개발 및 부품의 국산화 추진 미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제품의 생산기술면에서는 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제품의 설계기술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날로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단기간에 개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 개발 사이클 타임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제휴는 사실상 기초 기반 기술보다는 제품생산에 직접 필요한 생산기술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 업체는, 도입된 기술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이를 소화·응용하여 독자적인 자체 기술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진국 특히 일본에 의존하여 설계 및 개발 기술은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대일 기술 속국으로서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술 의존도, 수입의존도의 지속적인 증가만 가져오게 되며,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기류

를 생산 수출하면 할수록 대일무역적자의 심화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3.2.3 대일 수출 마케팅 노력 부족

제품에 대한 품질, A/S, 다양성, 첨단성 등 일본 시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은 외국의 수출업체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 일본 시장 내의 판로 확보는 매우 큰 관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업체들은 이러한 문제점만을 일부 인식하고 있을 뿐 일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조사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개발원의 대일 마케팅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대일 수출업체의 90% 이상이 일반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시장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체의 비중도 2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촉진비가 전체 판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마케팅 노력이 극히 미진한 것으로 분석된다.⁽¹²⁾

3.3 엔화 강세에 따른 문제점

엔화의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일본의 대규모 무역수지흑자 등으로 인하여 1992년 말부터 급격히 절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엔화 가치의 상승은 엔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며, 대일 무역수지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상승할 수 있으나, 대일본 수입규모가 수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역수지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본은 최근의 엔화 강세에 대하여 엔화의 강한 대외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고가의 내구 소비재 등의 수입이 확대(고급자동차 등) 되고 있으며, 엔고 이후 일본기업의 해외진

출이 급증하여 해외생산 거점으로부터의 완제품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엔화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개선 효과는,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입 구조,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의 공산품 경쟁력, 일본의 수입 구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대일 수입품은 일본 수출가격의 변동에 대해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엔화 강세로 인한 우리나라 수입 가격의 상승 효과는 매우 큰 반면에 한국의 대일 수출품의 경우 일본 시장에서 대만,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에 의해 수출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증가 효과는 수입 증가 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3.3.1 엔화의 환율 변동 추이 및 상승 원인

그림 2와 표 3이 나타낸 바와 같이 1992년

말 1 달러 당 126 엔 전후의 비교적 안정 상태에 있었던 엔화는 1993년 4월 말 110 엔대로 진입한 이후 상승을 계속하여 왔으며 '95년 1월 100 엔대, '95년 4월에는 80 엔대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엔화 가치의 급등은 1980년대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이래로 지속되어 온 스태그플레이션, 달러화의 불안정, 정부 규제의 강화, 고금리와 증권시장의 침체, 생산성의 정체와 산업 경쟁력 약화, 재정 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 누증이라는 복잡한 문제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¹⁴⁾

이러한 최근의 엔화환율변동은 미·일간의 경상수지 격차가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엔 절상을 예상한 투기자들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멕시코사태와 이에 따른 개도국시장 기피현상으로 엔, 독일마르크, 스위스프랑 등 안전투자처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지난 4월까지의 엔급등을 유발하였다. 그동안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엔화 매각개입이 있었으나 엔 강세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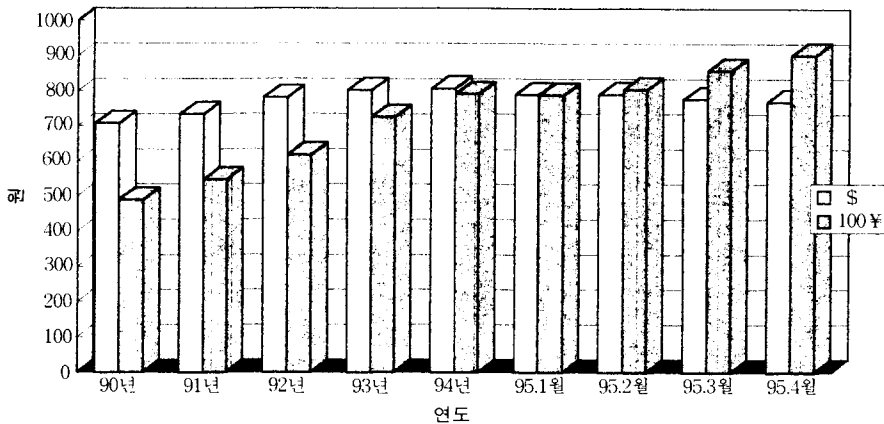


그림 2 엔화 및 달러화의 변동 추이

표 3 엔화 및 달러화의 변동 추이

구분	'90	'91	'92	'93	'94	'95. 1	'95. 2	'95. 3	'95. 4	비고
\$	708.5	734	781.3	802.6	807.48	790.1	790.7	778	770.1	
100¥	490.4	547.9	618.6	726.6	791.8	789	804.3	858.9	902.5	
¥/1\$당	144	134	126	111	102	100	98.3	91	85	

엔화 강세현상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의한 달러화 약세의 반영과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려는 주요국간의 정치적 협의의 결과인데 제반여건도 이러한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엔화의 강세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3.2 엔화 강세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영향

과거의 대일 무역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엔화 강세 기간에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오히려 심화되고 엔화 약세 기간에는 대일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비정상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엔화강세시에는 대일 무역수지가 가격 경쟁력 개선으로 약간 개선되다가 그 후 그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엔화 강세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엔화 강세가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대일 수출 물량의 증가를 가져오나 대일무역구조의 경질성으로 인해 대일 수입물량이 감소하지 않는 반면, 대일 수입가격은 곧바로 상향 조정되어 대일 수입 증대 효과가 대일 수출 증대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⁵⁾

4. 대일무역적자 개선 방안

4.1 기계공업 정책 및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대일 의존적 구조임에 따라 기계류,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 현상은 대일 무역역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기계류, 부품, 소재를 국산화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음과 같이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첫째, 현재 기계류의 수입 규모를 감안하여 국산화가 보다 절실한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 품목을 고시하여 개발을 희망하거나 개발 능력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개발 자금, 기술정보 등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개발 대상 품목의 선정에서부터 국산 개발과 수요 기반 구성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국산화 계획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산품 개발에 대한 일본의 저가 수출사태가 점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덤핑은 국내 기업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도 대일 기술 의존의 지속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민, 관 합동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산화 전후 수입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덤핑판정시 제소하거나 관세율 조정을 통해 수입 기계류, 부품, 소재의 내수 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산 개발 품목에 대한 수요 확보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산 기계 구입 자금과 자동화 설비자금 등 국산 기계류 수요 금융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금융부담을 최소화하여 줄여야 하겠다. 또한 국산 기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하여 품질 보증 제도를 강화하고, A/S활동을 강화하여 수요자에 대한 성과 미흡에서 오는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2 대일마케팅 활동의 강화

그 동안 일본과 거래했던 기업들 가운데는, 단기적 이익확보를 위해 대일수출보다는 오히려 수출에 역점을 두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대일수출 전담조직의 구성 등을 통해 일본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감과 함께 종합상사들도 동

경이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 편중되었던 지사망을 지방 중심도시에도 확충하여 지방상권에 대한 진출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추된 신용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상품불량률억제나 납기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일부품목 중심의 집중수출을 지양하고 기계류, 선물용품, 생활용품 등 대일 유망상품의 발굴 및 수출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국내 수요면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확산이 가능한 신규제품의 개발과 함께 대일마케팅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소비자의 제품선호동향, 경쟁국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활동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마케팅측면에 대해서는 주체가 일본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먼저 우리기업들이 기계 및 전자부품 등에 대한 OEM수주를 위한 대응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자체브랜드에 대한 완제품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대일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부품류 등을 중심으로 최근 일본기업이 기술이전을 해주면서까지 해외로부터 개발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충분히 활용, 우리의 취약한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차원에서도 OEM방식의 부품개발 수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남아 및 중국 등으로 전환되고있는 일본기업의 해외투자진출 방향은 역수입확산을 통해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국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노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¹⁶⁾

4.3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의 대일본 탈피

고급기술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그 계약조건으로 제품의 대일수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음을 고려하면 기술도입의 다변화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초기술의 축적이 없어 조금만 기술이 바뀌어도 다시 그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등 일본과 같이 수요 패턴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재빨리 적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투자 증대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과의 지적소유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강화에 의한 독창적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므로 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신제품이나 신기술개발을 위한 R & D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며, 연구조합의 결성 등에 의한 공동연구의 활성화로 창조적 기술개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투자증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에 의한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기술개발 및 기존기술의 융합에 의한 신기술 창출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맺 음 말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여건 하에서 기술집약형 수출주도의 경제기반 구조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고, '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모든 산업구조 및 소비행태 등 경제의 초점이 수출주도형으로 매우 급속히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외형성과 일변도의 경제개발 추진은 그 동안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최근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등의 문제점, 특히 대일 무역역조현상은 2000년대 세

경경제를 이끌어 갈 환태평양 지역의 핵심국가로 발돋움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의 원인은 지역적인 인접성 및 문화, 언어의 유사성 등에 기인한 의존도의 심화 및 기계류 등의 주요산업 기반기술의 취약으로 산업 및 무역구조가 지나치게 일본에 치중되어 있고 이에 따른 기계류, 부품, 소재 등을 일본 수입에 대부분의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가격 및 품질 저하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약화와 일본의 관세·비관세 장벽, 그리고 최근 엔화강세에 의한 수입비용의 증폭으로 무역역조는 최근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주요 핵심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의 대일본탈피, 부품, 소재의 국산화 노력, 정부시책의 적극적 추진, 대일본 마케팅 활동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주요 핵심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의 대일본탈피는 첫째, 기술제휴 등에 의한 기술도입시 가급적 일본업체보다는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및 유럽국가 등으로 기술도입 업체를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주요핵심 기반기술에 대하여는 기존의 산학 연구활동, 정책적인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부품소재의 국산화는 기계공업의 예를 들면 현재 모든 설비, 기기류의 주요핵심 부품인 베어링류, 동작기계용 콘트롤러, 특수소재 등은 대부분 국산화가 어려운 상태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의 협소, 과다한 개발비, 기반기술력의 부족 등으로 국내업체에서는 개발이 곤란한 상태로 수입의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품목들은 정부의 지원 하에 대기업간의 협력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시책의 적극적 추진은, 국내 자본재 산업중 기계류, 핵심부품, 소재산업 등의 경쟁력이 없는 품목들에 대하여, 특히 설계기술, 제어계측 기술 등에 대하여 국산화의 차

원을 넘어 우리 나라의 향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세계최고 품질의 제품생산이 필요하다. 즉 신제품개발, 자금지원, 판매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 등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크나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일본 마케팅 활동 강화 측면에서는 일본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품 판매를 위한 철저한 수요조사 및 정보관리가 관건이다. 마케팅 측면의 시장조사는 기업의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기업체는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여 일본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요청사항 등을 정확히 판단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기타 엔고의 문제는 지난 4월 10일 도쿄 외환 시장에서 한때 1 달러 당 엔화가 80 엔 15전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80 엔대가 붕괴되어 이제 70 엔대까지도 돌입할 수도 있다는 기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접쳐지는 상황까지 다다랐다. 이러한 엔고는 제3국에서의 무역수지개선 효과는 있지만 대일 무역수지는 치명적으로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첫째, 기술개발을 통한 핵심부품의 국산화, 둘째, 경공업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동남아권과의 제품차별화로 수출경쟁력 확보, 셋째, 엔고에 따라 일본기업이 부품산업 및 소재산업 진출을 해외로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유치 및 OEM생산 등으로의 역수출을 적극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대일무역 역조는 기술의 대일의존, 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 각종 무역장벽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단기간에 무역역조를 개선하기는 어려우나, 일본과의 장기적 협력 및 동반관계를 수립하여 산업구조 조정에 의한 한일 수평 분업을 추진하고, 양국간

무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기업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산업연구원, 1993, “세계경제동향,” p. 1.
- (2) 송만기, 1986,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 시정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 (3) 이해주, 1992, “한일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p. 1.
- (4) 조명순, 1986, “대일무역역조 현황과 그 시정 방안,”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
- (5) 이성득, 1993, “우리나라 대일무역역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단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 (6) 한국산업은행, 1992, “경제브리프스,” p. 1.
- (7) 재정금융사, 1992, “대일무역적자 확대 요인과 전망, ‘재정,’” p. 52.
- (8) 한국산업은행, 1987, “대일무역역조와 산업구조 조정,” 조사월보, p. 6.
- (9) 재인용, 1993,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관세정책,” 나라경제, 국민경제연구소, p. 88.
- (10) 사공목, 1991, “한일산업협력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세계경제동향, 산업연구원, pp. 89~92.
- (11) 최용석, 1993, “한국의 대일무역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12) 홍영재, 1994, “한국의 대일무역역조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13) 이기원, 1993, “엔화강세가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p. 6.
- (14) 이기원, 1993, “엔화강세가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p. 4.
- (15) 재인용, 1992, “한국경제의 산업무역모형,” 한국개발연구원, pp. 131~173.
- (16) KOTRA, 1992, “일본통상정보,” 제92권 제3호, p. 10, pp. 33~34. 